

體系的 韓國美學의

定立을 위한 課題

白 琪 洙

일찌기 故 又玄 高裕燮 先生께서 生前에 四十平生이란 짧은 歲月 동안에 이나 草創期의 美學界·美術史學界·考古學界에 홀로 이룩해 놓으신 遺業은 이루 筆舌로 形容할 수 없으리 만금 實로 至大한 것이며 先生의 그러한 先驅者로서의 獻身의 努力은 斯學界에 從事하는 後進들의 勉學과 研究를 위한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서 이나 學術史上 永遠히 빛날 것이다.

先生의 履歷事項이나 學術業績에 관해서는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는 바이며, 아지도 햇빛을 보지 못한 先生의 遺稿는 學術의 몇몇 뜻 있는 人事들의 獻身의 盡力으로 整理 中에 있어 世上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터이므로, 本稿에서는 先生의 三十周忌를 맞이하여 새삼 先生의 遺志를 다짐하는 뜻에서, 그리고 이나 美學界의 發展을 위한 하나의 提言으로서 體系的인 韓國美學의 定立을 위한 課題에 관해서 몇 字 적어보고자 한다.

以上の 內容은 「弘益美術」(第三號, 一九七四, 弘益大學校 美術大學 刊)에 그 일부가 掲載된 것임을 밝혀두며, 이에 諒解를 구하는 바이다.

一

잘 알려져 있듯이 美學이란 學問은 본시 西歐世界에서 하나의 獨自의 學問領域을 차지하는 個別科學으로서 學名이 주어지고 體系化되어 發展한 學問이며, 그 歷史가 그다지 오래지 않다. 그러나 모든 事物은 事實上 그 名稱이 생기기 앞서 이미 存在하고 있는 법이듯이, 美와 藝術에 관한 學問의 省察인 美學의 歷史도 그 學名이 생기기 훨씬 以前

에, 모든 學問의 畧이 올튼 古代 그리스時代에까지 더듬어 올라가 볼 수가 있는데, 近代에 이르러 여러 갈래의 自然科學·社會科學·人文科學이 각각 分科를 形成하고 獨立하게 되어, 각 分野의 研究가 점차 深化되어 감에 따라서, 美的 現象이나 藝術現象에 관한 理論的인 省察의 論究도 一八世紀에 이르러 獨自의인 學問의 領域을 차지하는 하나의 獨立된 學問으로서 命名된 以來, 특히 一九世紀 後半 以後 多樣한 發展相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西歐世界에서 비롯되어 體系化된 美學이 우리 나라에 移植된 것은 現在 서울大學校의 前身인, 日政治下의 京城帝大 法文學部에 美學 專攻 學科가 設置된 것과 때를 같이 한다. 이는 日本人들의 文化政策의 一環으로서 美學이란 學問에 대한 크나 큰 關心에서 緣由되는 것이다. 이에 앞서 日本에 있어서는 幕末 以來로 당시의 여러 思想家들이 모 든 學問上의 方法論的 自覺으로서 西歐의 新思想을 進取的으로 攝取하여 왔던 日本開化期의 先驅의 基本姿勢에 緣由되어, 일찌기 一九〇〇年에 東京大學에 最初로 美學講座가 開設되고 獨立된 學科로 設立된 以來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至大한 發展을 이룩하고 있다. 現今에 있어서 이들의 研究動向은 이미 오래 前에 西洋美學의 攝取段階를 벗어나서, 西洋美學만을 絕對視하고 이에 固執하려는 研究態度에서 떠나, 日本의 特殊性에 立脚해서 自國民의 特有的 美意識·自國民의 藝術文化의 本質究明으로 特殊美學의 探究나 比較美學의 研究를 볼 수 있다. 勿論 西洋美學에 관한 深奧한 探究도 不少하나, 自國民의 美意識과 密着된 美學, 自國民의 美學을 體系化하고, 나아가서는 自國民의 美的 文化와 學術의 文化의 發展에 至大한 貢獻을 하고 있다.

한편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西洋美學이 導入되었던 初期, 京城帝大에서 美學을 專攻한 唯一한 韓國人으로서, 序頭에서 論及한 바 있거니와, 우리나라 美學界의 先驅의 人士라고 할 수 있는 又玄 高裕燮 先生의 研究에서도 그러한 成果를 볼 수 있는 터이다. 韓國民族의 美的 文化의 特質, 韓國 傳統藝術의 本質問題에 관한 又玄 先生의 深奧한 美學的 探究를 비롯해서, 그 후에도 이 方面에 관한 研究가 결코 不少한 것은 아니다.

더우기 昨年에는 우리 나라에서도 弘益大學校 大學院에 美學·美術史 學專攻學科가 設置되어, 앞으로의 韓國美學界의 發展을 위해 크게 바람직한 일로 慶賀해 마지 않는 터이며, 앞으로도 각 大學에 美學專攻學科가 設置되고 美學專攻人士가 次々輩出되어, 美學의 沒認識과 美學人口 不足으로 沈滯을 免치 못하고 있는 이 나라 美學界의 發展을 위해 貢獻하기를 빌어 마지 않는 바이다.

知性的 枯渴은 人間을 動物化할 것이요, 끝내는 原始的 混沌 가운데 人類文化的 破滅을 招來할진대, 萬物의 靈長인 人間만이 營爲할 줄 아는 人間의 精神活動의 所産으로서 精神文化的 根幹을 이루는 美的文化에 關係 學問의 省察을 深化하고 나아가서는 이를 바탕으로 해서 健實한 藝術文化的 育成과 그 發展에 이바지할 수 있는 學問이 곧 美學이라고 할 때, 美學의 不在는 美的文化의 破滅을 意味하게 될 것이요, 한편 熱誠의 인이의 探究는 文化民族으로서 幸福하고 價値있는 人間生活을 營爲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요 明若觀火한 理致이다. 이런 意味에서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美學의 重要性은 再論의 餘地가 없다.

그 동안 日帝治下의 文化政策, 八·一五光復後의 混亂, 六·二五動亂의 慘禍를 겪는 동안에, 이른바 舶來文化라고 하는 外來文化的 無批判的 受容으로 韓國의 特殊性과 民族의 主體意識이 稀薄한 가운데, 韓國民族의 美意識에 土臺한 韓國의 傳統藝術文化에 대한 價値가 깊어 認識되지 못한채, 이分野에 關係한 美學의 探究 努力이 旺盛치 못했음도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이다.

日政下에 있어서는 이른바 內鮮一體라고 하는 日人과의 同化政策의 一環으로서 韓國人의 民族性을 抹殺하고, 自主的인 固有한 傳統文化的 性格을 歪曲하여 韓國民族의 文化的 價値를 否定하고, 傳統文化를 斷絶하려는 受難을 겪어야만 했다. 그 후 八·一五光復과 六·二五動亂은 社會的 混亂과 危機意識을 招來하는 가운데, 外來文化受容에 있어서 方向感覺을 喪失하고, 文化的 混亂狀態를 빚어냈다.

본시 文化란 恒常 他文化和 相互 影響을 주고 받으면서 相互 交流하는 가운데, 하나의 文化形態가 形成되고 文化單位가 成立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他文化的 受容에 있어서 民族의 主體意識을 가지고 固有한 風土 위에 適合하게 自然스러운 過程을 거쳐 順理的으로 受容될 때, 비로소 그 受容文化는 既存의 傳統文化와 함께 融合되어 土着化되고, 여기에서 새로운 文化樣式이 創造되며, 文化로서의 價値를 갖게 되는 것이다.

現下 우리 나라에서 過去의 어느 때보다도 더욱 民族의 主體性的의 發揚이 要求되고, 우리의 固有한 美的文化遺產의 保護와 아울러 外來文化的 受容態勢에 대한 批判과 함께 堅實한 民族文化의 暢達이 切實히 要請되는 이 時點에서, 方向感覺을 喪失한 文化現象, 文化的 混亂의 現實을 直視하고, 우리의 自主的인 文化價値基準을 우리의 固有한 風土와 傳統 속에서 찾고 그 위에 새로운 民族의 藝術觀을 確立하는데 있어서 思想的 基準을 마련해 줄 美學은 實로 重要한 意義를 갖는다.

이러한 情況下에서 우선 一般美學의 意義에 關係해서 論及하고, 이와 聯關하여 特殊美學으로서의 體系的 韓國美學의 定立을 위한 課題에 關係해서 以下 論述하고자 한다.

二

우리가 日常的으로 (美學)이란 用語를 使用할 때, 이 말 가운데는 두 가지 意味가 있을 수 있다. 그 하나는 (純粹學問)으로서의 美學이란 意味이고, 또 하나는 (藝術觀)으로서의 美學이란 意味이다. 前者는 文字 그대로 美的인 것에 關係한 學問, 즉 藝術 및 自然에 있어서의 美的 現象을 對象으로 하는 學問의 探究를 말한다. 한편 後者는 通俗的으로 이를테면 「그 작가에게 美學이 있다」 또는 「없다」고 말하는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藝術家 나름으로 지니고 있는 藝術觀을 말하는 경우이다.

純粹學問으로서의 美學은 다른 모든 學問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人間의 純粹한 愛智的 關心에서 비롯된 것이다. 무릇 모든 學問은 본시 世界現象에 대한 驚異에서 비롯된 人間의 精神機能의 所産으로서, 眞理를 渴求하는 愛智的 關心에서 省察的態度로 自然과 人生에 關係한 理論的 批判的 體系的 知識을 얻음으로써 人間의 知的 欲求를 充足하여, 나아가서는 人間이 當面하는 現實生活의 諸問題를 보다 더 知慧롭게 解決하려

는데 그目的과意義가 있는 것이다. 이와同一하게美學도 역시自然이나人生에 있어서의美的現象乃至藝術現象에 대한驚嘆과驚異에서 비롯된 것이다.美나藝術은人間生活에서遊離된,因練이된抽象觀念이 아니라,바로 끊임없이 우리의人生의 터전에서 우리의精神의內部에 깊이 스며들어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안겨주는 사랑스러운 벗이요, 우리의生을 充實하고 幸福하고 潤澤하게 해주는實在요 現實이다.

美學은 그처럼 우리의人間生活에서 貴重하고 價値 있는 美와藝術에 觀察省察의 態度로 理論的 批判的 體系的 知識을 얻음으로써 그眞相을 理解하려는데 直接的인 目的이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人類가 이룩한 學術의 文化·道德的 文化·宗教的 文化와 함께 文化의 一領域을 차지하는 美的 文化에 있어서 그 社會, 그 國家, 그 民族, 그 時代의 格調 높은 美的 情操와 洗練된 審美眼, 健全한 美的 趣向을 達成하는데 至大한 影響을 줌으로써 堅實한 美的 文化創造의 精進 完成에 이바지하려는데 意義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目的과 意義를 가진 美學은 항상 愛智的 關心을 가지면서 人生을 營爲하는 知性人들에게는 勿論이요, 특히 藝術家에게는 없어서 아니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알차고 보람되고 意義 있는 藝術活動을 이루하기 위한 藝術觀, 즉 藝術家 나름의 美學을 確立함에 있어서 必須的인 것이다.

우리는 人生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사람마다 人生觀이란 것이 있어 제각기 제나름대로 그 人生觀에 따라 人生을 營爲한다. 이와同一하게 藝術家에게도 藝術觀이란 것이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그 人生觀은 教育의 程度나 自己修養의 程度에 따라서, 혹은 知性的 程度나 男女性別이나 老幼의 差異에 따라서 다르게 마련이다. 勿論 人生에 관해서 아무런 知的 反省도 없이, 그저 무턱대고 되어가는 대로 살아가는 人生보다는 知慧롭고 賢明한 知性和 豊富한 人生의 體驗을 바탕으로 해서, 人生의 眞實한 目的이나 意義를 確固하게 認識하고 眞摯한 人生觀을 樹立해서, 이에 따라 誠實하게 人生을 營爲할 때, 비로소 바람직한, 그리고 보람되고 알찬 人生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藝術家の 경우도 이와同一하다. 藝術家에게도 저마다 藝術觀, 즉 저 나름대로의 美學이 있어서, 이에 따라 藝術活動을 營爲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그 藝術觀은 人生觀의 경우와同一하게 藝術家 自身이 從事하고 있는 藝術이란 것에 관한 아무런 知的 反省도 없이, 다시 말해서 自己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目的과 意義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으면서 그저 손끝의 才操만을 弄하는 것이라면, 匠人的 技能人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것이다.

藝術家는 藝術이란 무엇인가 하는 問題에 관한 眞摯하고도 깊은 知的 觀察로써 美學的 敎養을 바탕으로 한 藝術觀을 確立하고, 이에 따라서 藝術創作活動을 營爲하게 될 때, 비로소 알차고 價値가 있는 藝術, 意義 있고 理念이 있는 藝術創造가 可能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偉大한 藝術의 創造자에게는 반드시 偉大한 藝術觀, 즉 深奧한 美學이 있게 마련이다. 美學은 그와 같이 藝術家로 하여금 바람직한 藝術觀을 確立케 하는데 그 바탕이 되는 것이며, 藝術創造에 있어서 藝術理念의 根幹을 이루는 것이다.

이런 意味에서 美學은 藝術家의 實際的인 創作活動을 直接 具體的으로 指導하기 위한 것도 아니요, 또한 鑑賞者의 翫賞方法을 具體的으로 敎示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되풀이해서 말하려니와 美學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안겨주며 우리의 人生을 充實하고 幸福하고 潤澤하게 해주는 美的 文化, 바로 이처럼 貴重하고 우리가 보람된 人生을 營爲하는데 없어서는 아니되는 美的 文化에 관해서 그 正相을 探究하고 그 價値를 理解하려는 人間の 愛智的 關心에서 비롯된 努力이며 藝術家가 바람직한 藝術創造를 이루하는데 그 바탕이 되는 堅實하고도 確固한 藝術理念으로서의 藝術觀을 確立함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三

이제까지 論及한 바와 같이 美學이란 學問이 藝術 및 自然에 있어서 美的 現象을 對象으로 하는 學問으로서 美的 文化發展을 위해 그 思想的 基盤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할 때, 韓國美學은 韓國의 特殊性에 立脚한 特殊美學으로서의 性格을 가지고 韓國의 藝術 및 自然에 있어서

의 韓國의인 美的 現象을 對象으로 하는 學問으로서, 韓國民族의 美的 文化發展을 위해 貢獻하는 學究의 努力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人類는 하나이며, 비록 그 皮膚色이나 容貌가 제각기 다를지라도 다 같이 人間에 틀림 없다. 그러나 東洋人과 西洋人이 嚴然히 區別되고 韓國人은 日本人이 아니듯이, 美學은 하나임에 틀림 없지만 英·美人 나름의 世界觀이나 人生觀에 바탕을 둔 具體的인 美的 體驗에 의한 美學의 省察로서의 英·美 美學과 獨逸人이나 佛蘭西人 나름의 獨逸 美學과 佛蘭西 美學이 區別되며, 이에 東洋人으로서의 韓國人 나름의 世界觀乃至 人生觀에 바탕을 둔 經驗的 具體的인 美意識의 特殊性에 根本된 美學의 省察로서의 體系的인 韓國美學이 定立되어야 함은 當然한 일이다. 그와 같은 目的과 意義와 性格을 갖는 韓國美學의 體系的 探究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課題가 있다.

첫째로는 韓國美學이 特殊美學으로서의 性格을 가지며 韓國의 特殊性에 立脚한 探究의 努力이라 할 때, 이에 무엇보다도 먼저 韓國의 傳統的인 美的 文化의 特殊性의 正相에 관한 韓國學의 探究를 前提로 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이를 위해서 모든 文獻史料와 具體的인 藝術作品을 통해, 韓國民族의 特殊한 世界觀乃至 人生觀에 바탕을 두고 그 가운데 담겨진 美意識乃至 藝術精神을 抽出하고, 이로부터 美學의 思想을 整理綜合하는 것이다.

셋째로는 그와 같이 해서 整理綜合된 美學의 思想을 比較美學의 立場에서 他民族이나 他社會集團의 美的 文化乃至 美學의 思想과 比較 檢討하는 課題가 있다.

네째로는 지난날의 모든 韓國의 美的 文化의 特殊性을 現代의 狀況에서 解釋하고 이를 批判 評價하는 가운데, 傳統的인 韓國民族文化의 發揚과 아울러 앞날의 바람직한 美的 文化價値의 알찬 창조를 위한 學究의 努力이 있어야 할 것이다.

以上과 같은 韓國美學의 課題를 위해서는 一般美學에서 提起되는 諸問題에 對應해서 다음과 같은 諸問題가 論議됨으로써 韓國美學의 體系的 研究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① 美的 體驗

美的 現象은 主觀的인 美的 體驗의 側面과 客觀的인 美的 對象의 側面으로 大別될 수 있는데, 美的 現象과 自我와의 聯關에서 成立되는 것이므로, 美的 體驗의 問題는 美的 對象의 問題와 相關關係下에 論究되어야 한다.

美的 體驗은 自然에 있어서인 藝術에 있어서인 美的인 것을 窮極的인 價値內容으로 하는 美的 對象에 대한 直接的 價値體驗인 享受體驗의 側面과, 美的 價値對象으로서의 藝術作品을 創作하는 創作體驗의 側面으로 區分할 수가 있다. 이 兩側面 모두가 美的 價値體驗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美的 體驗은 體驗主體의 美的 價値觀과 아울러 美的 對象에 대해서 이에 適合한 美的 態度를 가짐으로써 成立되는 것이다.

이러한 美的 態度는 他民族 他社會集團의 그것과 區別되는 韓國民族特有的 世界觀乃至 人生觀에 바탕을 둔 美意識乃至 美的 價値觀에 根本되는 것이며, 넓은 意味에서 東洋의 宇宙觀에 根本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韓·中·日 東洋三國이 同一文化圈에 속하면서 제각기 獨自的인 固有의 文化를 形成하게 되었으니 만큼, 韓國의 特殊性에 立脚한 美的 體驗의 特質에 관한 研究에 있어서는, 우선 그 淵源을 이루는 古代 東洋의 古典의 思想에 관한 理解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古代 東洋의 先行思想 및 儒·佛·道家思想의 影響을 받으면서 韓國民族의 固有한 美的 文化를 形成하고 있는 韓國의 特殊性에 立脚해서 美的 體驗의 問題가 論究되어야 할 것이다.

② 美的 對象

美的 對象은 이를 自然美的 對象과 藝術美的 對象으로 大別할 수가 있다. 前者는 風景美와 같은 通俗的 意味에서의 非人間的 對象의 美만이 아니라, 이以外에 널리 人間·人生·歷史·社會 등을 包含해서 一般적으로 藝術意欲에 의해 美的으로 價値가 있는 것을 創造하려는 意圖下에 自然에서 주어진 材料를 功工 形成하므로써 成立되는 藝術作品이다.

韓國美學에 있어서의 美的 對象의 問題는 自然美的 對象이건 藝術美的 對象이건 美的 體驗의 問題를 論究하는 경우와 同一하게, 東洋의 宇宙觀과 聯關해서 韓國의 特殊性에 立脚한 韓國民族의 世界觀乃至 人生

觀에 바탕을 둔 美意識 乃至 藝術精神을 土臺로 해서 論究되어야 한다. 이는 美的 對象이라고 하는 것이 그 自體만으로써 成立되는 것이 아니라, 美的 對象에 대해서 이에 適合한 美的 態度를 갖는 美的 主體에 대해서만 美的 對象으로서 成立되기 때문이다.

美的 對象으로서의 藝術作品은 時代의 記念碑로 남는 것이며, 精神의 根本形式의 하나인 客觀化된 精神의 典型的인 것으로서 時代를 超越하여 永續的 性質을 갖는 것이다. 이와 同時에 人生理解의 最善의 機關으로서 人生觀 乃至 世界觀에 바탕을 둔 美意識 乃至 美學思想을 具現하는 것이다. 이런 意味에서 우리는 藝術作品의 構成要素인 材料·形式·內容 등으로부터 우리의 傳統的인 民族의 人生에 바탕을 둔 韓國民族의 美意識 乃至 美學思想을 理解할 수가 있는 것이다.

③ 美的 範疇

美的 概念은 日常的인 意味에서의 美를 뜻하는 狹義의 美로서 肯定的 調和的인 快感을 主觀에 喚起하는 純正美만이 아니라, 이 以外에 否定的 不調和的인 不快感을 그 要素로 內包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契機를 통해 全體의 獨特한 統一의 美的 快感을 喚起하는 特殊美로서 美學的 考察의 對象이 되는 優雅美·崇高美·悲壯美·滑稽美·醜 등 基本的인 美的 類型概念 및 그 派生形態나 浪漫的·古典的·抒情的·劇的·繪畫的·音樂的·詩的 등 諸群小範疇를 비롯해서, 이 밖에 無限히 多樣한 分化可能性을 지닌 廣義의 美的 樣態를 包容하는 것이다.

韓國美學에 있어서의 美的 範疇의 問題는 自然에 있어서인 藝術에 있어서인 그러한 美的인 것의 特殊相에 관해서 韓國民族의 美意識 乃至 美的 價值觀에 立脚 根據해서 韓國的인 美的 樣態가 論究되어야 한다.

④ 美的 價值

美的 價值는 眞·善·聖 등과 아울러 精神의 文化的 價值的의 하나로서 本質的 恒久的 生産的 普遍的 價值이다.

韓國美學에 있어서의 美的 價值的의 問題는 精神의 文化的 價值的에 관한 韓國民族의 普遍的 價值觀에 立脚해서, 他諸價値와 區別되는 美的 價值的의 特質과 價値 根據를 探究하고, 價値體系 가운데에서 美的 價値가 차지하는 位置와 他價値와의 關係를 論究하는 것이다.

⑤ 藝術體系

美的 現象으로서의 藝術現象은 個性的으로 多様な 것으로서, 藝術活動의 形式面 乃至 그 所産으로서의 藝術作品의 客觀的인 構造에 따라 여러 가지 觀點에서 그 種類를 區別할 수가 있다.

韓國美學에 있어서의 藝術體系의 問題는 他民族이나 他社會集團에서 볼 수 없는 特殊한 韓國的 藝術을 包含해서 多種多様な 諸藝術의 種類를 體系의 聯關性을 가지고 一定 原理에 따라 分類하고 統一的으로 論究하는 것이다.

⑥ 藝術機能

藝術은 곧 藝術 그 自體를 위해서 藝術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아닌 人間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人間의 生을 더전으로 해서 實現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人生에 있어서 創造的인 美的 價值的의 情感的 表現으로서 어떠한 機能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런 意味에서 韓國美學에 있어서의 藝術의 機能의 問題는 人間이 生을 營爲하는 가운데 聯關되는 學問·道德·宗教·社會·教育·人生 등과의 關係 및 機能에 관해서 論究하는 것이다.

⑦ 藝術史

韓國美學에 있어서의 藝術史의 問題는 韓國民族藝術의 單純한 史的 事實의 記述 說明에 局限된 問題가 아니라, 모든 史料와 具體的인 藝術作品을 土臺로 해서 韓國民族의 美意識 乃至 藝術精神의 歷史的 變遷過程에 관한 記述 解釋과 함께, 韓國的 特殊性에 立脚한 史的 發展原理의 定立을 論究하는 것이다.

⑧ 藝術批評

韓國美學에서 論議되는 以上の 諸問題에 관한 知識을 基本的 土臺로 해서, 一般美學에서 定立된 藝術批評原理에 따라, 韓國民族藝術의 價値를 現代의 狀況에서 批判 評價하며, 他民族 他社會集團의 藝術의 價値와 比較 評價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韓國의 民族的 傳統藝術의 發揚과 아울러, 앞날의 바람직한 美的 文化價値의 알찬 創造를 위한 方向提示가 있어야 한다.